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MATCHMAKER'S PLAYBOOK

가제 : 데이트 코치의 규칙

저자 : Rachel Van Dyken

출판사: Skyscape

발행일: 2016년 4월 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코믹, 로맨스



- * 영화 제작 예정, 아마존 킨들 스토어 **톱10**, 총 판매량 **15만** 부 초과
- *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헝가리, 러시아 판권 계약 체결
- * “작가 특유의 위트가 완전히 발휘된 책. 사랑은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두 주인공의 만남은 폭소를 자아내고 가슴 따뜻한 행복을 느끼게 한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엠마 하트

프로 미식축구 선수가 차린 특별한 소개팅 업체. 보자마자 한 눈에 여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준수한 외모에 예의 바르면서도 매력적인 매너로 원하는 여자들을 문제 없이 쟁취할 줄 아는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시작한 사업에는 엄격한 규칙이 하나 있다. 의뢰인과 절대 사랑에 빠지거나 한 침대에서 자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안과 렉스, 두 친구가 공동 운영하는 소개팅 사업이 이 규칙을 여태 한 번도 어길 일 없이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평생 한 남자만 쫓아다니느라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엉뚱한 매력녀 블레이크가 나타나면서 처음으로 위기에 봉착한다. 유쾌한 사랑 이야기의 대가로 많은 팬들을 거느린 작가가 새롭게 시작한 시리즈 첫 권은 예상치 못한 순간 찾아온 순수하고 발랄한 사랑 이야기로 또 다시 독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여자는 수도 없이 만나봤지만 사랑은 못해본 남자와 자신의 매력도 모른 채 남자를 겁내기만 하는 여자 블레이크의 사랑이 시작된다.

한때는 NFL 선수로 뽐힐 것이 확실시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던 이안은 끔찍한 무릎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했다. 살짝 갈색이 도는 금발에 파란 눈, 더 이상 선수 훈련은 하지 않아도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며 가꿔온 탄탄한 근육질 몸매는 여전히 못 여성들의 눈길을 사로잡지만 그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유는 친구 렉스와 새로 시작한 사업

때문이다.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남자와 만날 수 있을 법한 여성들을 뒤에서 전략적으로 도와주는 ‘웬맨’의 주 고객은 서른을 훌쩍 넘기고 어떻게든 정착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시달리는 여성들이다. 이러다 평생 혼자 살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에 충분히 매력이 넘치는 데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남자와 결혼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안의 사업 목표였다. 선수 시절, 여동생이 같은 팀 쿼터백에게 훌쩍 반해놓고도 이안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결국 그 친구가 여동생에게 관심을 보이게 만들자 질겁하며 그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일이 이안이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결국 아무리 찢어도 반응 없는 여동생에게 지쳐버린 쿼터백 친구는 포기해버렸고, 여동생은 집안일은 하나도 돕지 않고 온종일 게임기만 붙들고 사는 무능력하고 게으른 남자와 결혼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자신감 없는 여자들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매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서 마음에 둔 남자와 사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웬맨’이 다른 소개팅 업체와 달리 대기자가 줄을 서는 비결이었다.

새해가 시작되어 새로운 만남을 원하는 고객들이 줄을 잇던 어느 날, 이안과 렉스의 오랜 친구 개비가 두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며 자신의 룸메이트를 억지로 떠넘긴다. 개비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도와주게 된 그 친구의 이름은 블레이크. 어릴 때부터 짝사랑해온 데이비드라는 남자가 눈길 한 번 안 주는 것에 완전히 지쳐버린 블레이크는 이안의 ‘전문가’적 충고를 모두 따르겠다고 다짐하지만, 이안이 보기에 블레이크는 그간 도와준 수많은 고객들 중에서도 상당히 가망 없는 부류였다. 아무리 배구 선수라지만 시도 때도 없이 걸치고 나타나는 운동복과 운동화, 좋게 얘기하면 털털하지만 너무 남자 같은 지나치게 소탈한 행동까지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아예 기적을 바라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안은 어떻게든 블레이크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보기로 한다.

그러나 웬맨의 가장 중요한 규칙. 고객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약속이 다름아닌 블레이크 때문에 흔들리게 될지 누가 알았을까? 이안의 도움으로 서서히 왈가닥 소년 같은 존재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블레이크에게 이안은 난생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블레이크는 평생 고대하던 데이비드와 만나게 될까? 이안은 철저한 약속을 깨고 처음 느낀 마음의 신호를 따라갈까? 수시로 폭소를 자아내는 작가의 뛰어난 문장력과 매력적인 두 남녀의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중독성 있는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 소개>

레이첼 반 다이큰(Rachel Van Dyken)은 『Ruin』 시리즈, 『The Bet』 시리즈 등 유쾌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소설을 여러 권 발표하여 「뉴욕타임스」, 「월 스트리트 저널」,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제목 : THE FEMALE PERSUASION

가제 : 여자의 설득

저자 : Meg Wolitzer

출판사: Riverhead

발행일: 2018년 4월 3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현대소설, 여성소설



- * 미국에서 전자책, 종이책 포함 **50만** 부가량 판매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Interestings**』 작가의 신작, 초판 **20만** 부 인쇄 예정
- * 사랑과 환상이 피어나고 서서히 사라지는 과정, 한 여성의 삶을 뒤흔드는 강렬한 관계와 영향력에 관한 다층적인 이야기

개개인의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누군가와 관계가 한 사람의 삶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2013년에 발표된 아홉 번째 소설 『The Interestings(국내 번역서 제목: 인터레스팅 클럽)』에서 청소년 시절 예술 캠프에 만난 멤버들이 중년이 되기까지 삶을 차분히 조명하며 큰 화제를 모았던 저자가 이번에는 대학에 갓 입학해 세상을 잘 모르는 풋풋한 신입생 그리어와 60대 여성 운동가 페이스 프랭크,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여성과 권력, 특별한 관계가 한 사람의 삶에 발휘하는 커다란 영향력과 그로 인한 변화를 통해 사랑과 환상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과정을 보여준다.

코네티컷 남부에 위치한 별로 유명하지 않은 대학 라일랜드 칼리지에 입학한 그리어는 수줍음 많고 자기 주장을 거의 펼치지 않는 존재감 없는 여학생이었다. 평소에 누구보다 책도 많이 읽고,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살지만, 자신은 오히려 너무 생각이 많아서 주장을 펼치지 못한다고 한탄을 하곤 한다. 그런 그리어에게 입학한 지 7주째 된 2006년 10월의 어느 날, 페이스 프랭크가 나타난다. 기념 강의를 하러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 앞에 선 예수세 살의 여성, 수십 년간 미국 여성 운동의 중심 축으로 여겨진 우아한 이 여성의 연설에 그리어는 금세 마음을 빼앗겼다. 가만히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얼마든지 나서서 행동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살아온 페이스는 자신과 만난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저 생각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어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 얼마 전부터 연인 사이가 된 코리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서도 그저 사랑 하나만을 위해 살 수는 없다고, 꿈도 야망도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그리어에게 페이스의 연설은 그 길을 보여주겠다고 손을 내민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페이스 역시 평범한 갈색 머리카락 한 쪽을 눈에 확 띄는 새파란 색으로 염색한 그리어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또래 대학생들 대부분이 온갖 색깔로 머리를 물들이는 마당에 단순히 튀는 색 머리카락 때문에 페이스가 그리어에게 주목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 곳곳을 돌며

수없이 많은 여성들과 만나 그들의 삶이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온 타고난 리더답게, 페이스의 눈에 그리어는 어딘지 모르게 안쓰러운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세상을 불편해하는 젊은이, 불안하고 방황하는 젊은 여성, 자신이 인도해줘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어는 페이스가 자신에게 흥미를 느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두 눈을 트이게 한 페이스와의 만남이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아주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결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건 페이스도, 그리어도 전혀 예상치 못했을 뿐이다.

페이스는 그리어의 삶으로 성큼 들어와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게끔 인도한다. 그러나 페이스가 이끄는 삶은 그리어가 평생을 함께 하고픈 코리와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대학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와의 우정을 위태롭게 만든다. 페이스를 롤모델이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이상으로 여겼던 그리어는 개인적인 삶과 대의를 위한 삶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페이스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자신의 오롯한 삶은 어느 부분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작가는 세상에 성인으로 갓 첫 발을 디딘 그리어라는 젊은 여성을 통해 자아와 충성심, 여성들 사이에 형성되는 복잡미묘한 관계와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꿈꾸고 추구하는 야망의 본질을 날카롭고 통찰력 있게 그린다. 이전 작품들에서 인정 받은 진지한 주제와 유머, 감정의 진솔한 묘사가 균형을 이루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누구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뜨거운 열망이 있다. 때로는 스스로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누가 대신 발견해서 그 열정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하는 심리를 섬세하게 그리며, 페미니즘의 의미를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객관적이고 문화적인 시선으로 다룬다. 두 여성의 이야기지만 그리어의 삶에 또 하나의 큰 축이 되는 코리도 부차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는 강력한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이야기에 흥미를 더한다.

<저자 소개>

멕 월리처(Meg Wolitzer)는 뉴욕에서 태어나 스미스 칼리지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하고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했다. 아이오와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등에서 문예창작과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해 왔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하드커버 11만부, 페이퍼백 15만부, 전자책 22만 부 이상이 판매된 최신작 『The Interestings』를 비롯해 『The Wife』, 『The Position』, 『The Ten-Year Nap』, 『The Uncoupling』 등 남성과 여성, 가족과 우정 등 미묘한 인간관계와 감정, 특히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작품들을 발표해 왔다.

제목 : NEW YORK 2140
가제 : 2140년 뉴욕
저자 : Kim Stanley Robinson
출판사: Orbit
발행일: 2017년 3월 14일
분량 : 624 페이지
장르 : 소설/ SF



*** 독일, 헝가리 판권 계약 체결**

- * “소설 한 편에 도시 전체의 생동감을 포착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김 스탠리 로빈슨이 그 일을 기대 이상으로 해냈다.” – 「뉴스위크」
- * “출중한 **SF** 소설은 모두 그렇듯이 이 소설도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시선이 안으로 향한다. 사회적 의식이 짙고 영리하게 그려진 작품이다.” – 「GQ」 매거진, **2017년 3월** 최고의 도서 선정 이유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현재 과학계가 우려하는 해수면 상승이 현실이 된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극지방의 거대한 빙하가 녹아 바다가 지금보다 15미터나 높아진 미국 뉴욕을 무대로 그 호기심을 그려낸 소설이 완성됐다. 모든 도로가 물에 잠겨 좁은 수로가 되고, 하늘 높이 치솟은 건물은 그대로지만 맨 아래 여러 층은 물에 잠겨 건물마다 하나의 섬이 된 도시,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살아가는 각양각색 인물들을 통해 기후변화가 바꾸어놓은 삶의 모습을 흥미롭게 들여다본 소설이다.

뉴욕의 수많은 고층 빌딩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오랜 가치를 인정 받는 메트라이프 보험회사 건물은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 주거 건물이자 각 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소유권을 공동으로 보유한 일종의 협동조합이 되었다. 더 이상 지상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된 이상, 건물마다 최상층 몇 개는 상자나 화분에 식물을 키우는 도시 텃밭이 조성되었고 이 건물 역시 31층부터 35층까지는 벽 없이 탁 트인 정원이 마련되어 있었다. 토마토, 호박, 콩, 오이, 고추, 옥수수, 각종 허브까지, 먹을 수 있는 귀중한 식량이 자라는 화분들이 빼곡한 곳에 얼마 전 부모님으로부터 같은 건물의 집을 물려 받은 형사 젠이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찾아온다. 이들이 찾는 것은 농사에 필요한 연장들을 모아둔 작은 헛간. 그곳에서 무려 석 달간 살았다는 두 해커였다. 협동조합의 우두머리 격인 건물 관리인 블레이드가 원래 살던 집을 잃고 말았다는 두 사람을 안쓰럽게 생각해 임시 거처를 마련해줬다는 이야기나, 주민 위원회가 두 사람의 임시 거주를 허용했다는 이야기 모두 젠에게는 금시초문이었다. 문제의 해커들은 왜 하필 수많은 빌딩 중에 이곳을 골랐을까? 건물이 더 이상 주인을 추가로 들일 수도 없을 만큼 사람들로 꽉 차 여유라곤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왜 이들을 그것도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했을까? 젠은 부모님이 계실 때부터 얼굴을 알고 지낸 관리인 블레이드가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으리라 짐작한다.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긴 예순두 살의 덩치 큰 남자. 건물 보안 카메라를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사람. 젠을 바라보는 눈빛에 지치고

힘든 기색과 함께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도 뚜렷한 사람. 수사관으로서 오랜 경력상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법이니, 젠은 그도 일단 수사 선상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해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젠을 비롯한 여러 형사들이 찾는 두 사람은 그저 소소한 말썽을 일으킨 조무래기들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건드린 건 국가 전체, 심지어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는 금융 시스템이었다. 암호를 만들고 해독하는 전문가인 두 사람이 그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감쪽같이 사라지자 수사에 나선 젠은 관리인부터 시작해 메트라이프 건물에 사는 다양한 입주민과 만난다. 이타주의자를 표방하며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는 야심 만만한 무역업자는 알고 보니 그 원만한 포부가 모두 한 여자의 관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고, 일명 “이주 도우미”로 불리는 인터넷 스타도 등장한다. 빙하가 녹고 생존을 위협 받는 북극곰들을 자신의 비행선에 태우고 북극보다는 아직 기온이 낮은 남극으로 이주시키는 이 용감한 여성 모험가의 활약은 수백만 명의 팬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건물 주인이 아니지만 이곳에 수시로 등장하는 두 소년, ‘물쥐’로 통하는 아이들은 온종일 보트를 타고 브롱크스 지역 어딘가에 가라 앉은 금을 찾아 다닌 것으로 밝혀진다. 이곳에 잠시 살다 사라진 두 명의 해커가 저지른 일은 서서히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물에 잠긴 후에도 영리하게 적응해서 존속하던 도시의 근간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감상적인 면을 덜어내고 지구 온난화로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버린 도시에서 일어난 정치적, 경제적인 변화를 실감나게 그린 이 소설은 현재 예측되는 위기가 현실이 된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살 길을 모색하고 나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감탄과 놀라움을 자아내는 한편 이야기 곳곳에서 기후와 미래의 금융시장, 지금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는 젠트리피케이션, 환경을 아무렇지 않게 파괴하는 인간의 행동들이 촉발한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영향에 관한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다. 처음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던 다양한 인물들이 두 해커가 일으킨 사건을 통해 서서히 한 점으로 모여면서 이야기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거대한 변화를 참신한 상상력으로 묘사한 재미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김 스탠리 로빈슨(Kim Stanley Robinson)은 미국의 대표적인 SF 소설가로 베스트셀러 3부작 『Mars』와 비평가들에게 큰 호평을 받은 소설 『Forty Signs of Rain』을 비롯해 『The Years of Rice and Salt』, 『2312』 등 스무 편이 넘는 작품을 발표했다. 자연과 환경파괴, 사회학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어 왔으며 휴고 상, 네블라 상, 로커스 상을 수상했다.

제목 : THE LAST GIRL
가제 : 라스트 걸
저자 : Joe Hart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6년 3월 1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SF



* 아마존 스튜디오에서 영화 제작 예정

* **2016년** 출간 이후 전자책, 종이책 총 판매량 **20만** 부 이상

* **2권 「THE FINAL TRADE」** 도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3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지구상에 여자가 딱 1,000명밖에 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얼마 전 지카 바이러스로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아기들이 태어나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일처럼, 이전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타나 임신을 해도 남자아기만 태어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진다. 시작은 2017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여자아기의 수가 급감하더니 이듬해 상황은 점점 나빠져 신생아 중 여아의 숫자는 한층 더 줄고, 전 세계가 비상상황에 처한다. 의학계는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5년간 새로 태어나는 여자아기는 모두 대대적인 연구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지만,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사업으로 돌변한다. 정부가 조직적으로 나서 갓 태어난 어린 여자아이들을 찾으러 다니고, 백만 명당 겨우 한 명 정도의 희박한 비율로 딸아이가 태어난 집에서는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얼마 후, 임신 여성에게 감염되어 오직 남자아기만 무사히 산달을 채우고 태어날 수 있게 만드는 문제의 바이러스의 정체가 밝혀지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여자아이를 붙잡아 가려는 정부의 수색은 점점 집요해진다.

공적인 연구 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잡혀간 여자아이들은 ‘선진 연구시설’로 이름 붙여진 곳에서 세상과 완전히 두절된 채 살아간다. 이제 곧 스물한 살이 되는 조이도 태어나 줄곧 이곳에서 자라서 다른 기억이 없다. 공동 생활시설이라고 하기에는 24시간 내내 어딜 가든 따라다니는 담당 성직자가 조이를 비롯한 일곱 명의 소녀들에게 배정되어 있고, 책도 이곳에서 정해진 것만 읽어야 하는 철저히 폐쇄된 생활은 감옥이나 다름없다. 연구원들은 세상에 무서운 바이러스가 돌아 시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고, 그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이곳에서 지내도록 배려한 것이며 스물한 살이 되면 다시 가족들과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소녀들을 설득한다. 다른 아이들은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소위 ‘성년식’이라 불리는 스물한 살이 되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지만, 어릴 때부터 유독 영민했던 조이는 이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일곱 명의 소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성년식을 맞이한 친구, 테라가 그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었다.

부모님과 만나 꿈꾸던 가족들과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찾아와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은 예상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테라는 짓궂게 조이와 힘 없는 소녀들을 괴롭히던 아이들로부터 엄마처럼 지켜주던 친구라 그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고, 소식 하나 들을 수 없이 사라져버린 테라의 행방이 조이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의혹만 커져가던 어느 날, 조이는 누군가가 몰래 가져다 준 금지된 책을 읽고 연구시설에서 평생 배우고 들은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었음을 직감하고, 얼마 후 다가올 자신의 성인식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 채 기다리는 대신 시설을 탈출하기로 결심한다.

우여곡절 끝에 온갖 위협을 겪고 겨우 탈출에 성공한 조이는 폐허가 되어버린 세상에 처음으로 두 발을 디뎠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무작정 숲을 헤매던 중 나이 든 여자 두 명을 만난다. 두 사람의 도움으로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몰래 모여서 살아가는 생존자들의 무리로 들어가게 된 조이는 메릴이라는 아저씨를 만나고, 잃어버린 딸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아이가 다름아닌 시설에서 같이 생활한 미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미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메릴은 시설에 갇힌 딸과 다른 소녀들을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조이도 그 대대적인 계획에 기꺼이 동참한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정부와 연구시설은 아이들의 ‘보육자’를 자처하면서도 어린 소녀들을 무참히 학대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데, 이들이 바라는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 작전을 준비하면서 정부의 무서운 계획을 조금씩 알게 된 조이와 남은 생존자들은 충격 속에서 최후의 복수를 준비한다.

속도감 있는 전개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조 하트(Joe Hart)는 『The River Is Dark』, 『Lineage』, 『EverFall』 등 호러, 스릴러 소설을 주로 써온 소설가이다. 위 소설을 첫 권으로 한 ‘도미니언 3부작(Dominion Trilogy)’을 통해 미래사회를 무대로 한 스릴러 장르에 도전했다.

NON- FICTION

제목 :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IN FIVE CRASHES

가제 : 다섯 번의 주가 폭락과 미국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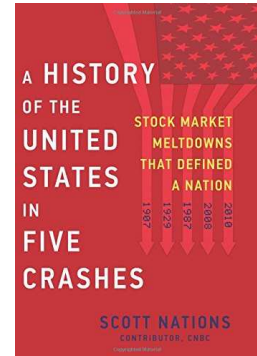
저자 : Scott Nations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7년 6월 13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경제/역사



- * “저자는 악명 높은 주가 붕괴 사태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포착하고 각 사건에 영향을 준 사회적 배경을 함께 제공한 흥미진진하고 특별한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 『**Backstage Wall Street**』의 저자, **CNBC** 출연자 조슈아 **M.** 브라운
- * “돈이 벌리고 사라지는 여러 방식을 분석하며 관심을 집중시키는 책” – 커커스 리뷰

미국의 주식시장에서는 1907년부터 현재까지 총 다섯 번의 주가폭락 사태가 벌어졌다. 매번 배경도 다르고 놀라운 뒷얘기가 숨어 있지만, 뜻밖의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 위기에는 미국의 금융 역사가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금융시장으로 표출된 미국 전체의 역사로도 해석할 수 있다. 오랜 세월 주식 거래자로, 재무 엔지니어로 활약해온 저자는 그럼에도 미국 역사를 주식 시장을 무너뜨린 역사적 사태로 조명한 시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책에서 100여 년의 세월 동안 벌어진 그 놀라운 성장과 추락의 과정, 의미를 되짚어본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각각의 금융 위기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이후 현대 금융 시스템의 발전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세계 전체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사태인지 세밀하게 분석한다.

저자가 꼽은 5대 주가폭락 사태의 첫 번째는 1907년 뉴욕증권거래소 주가가 바로 전년도 최고치에 비해 절반으로 폭 떨어진 사건이다. J. P. 모건의 친구가 설립한 니커보커 신탁회사에서 촉발된 이 사태로 미국 전역의 은행, 증권회사, 기업이 파산하고 300- 4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발생했다. 주식 윗거래와 예금자의 불신에서 시작된 이 엄청난 사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사태는 1929년 10월 29일, 다우 지수가 며칠 전 20 퍼센트 이상 폭락한 데 이어 추가로 하락하며 하룻동안 1,600만 주가 넘는 주식이 팔린 일명 ‘검은 화요일’로 대공황의 발단이 된 사건이다. 세 번째는 1987년 10월 19일, 다우존스 지수가 22.6 퍼센트나 하락한 ‘검은 월요일’이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장치가 손실을 증대시키고 기업이 실제 가치보다 주가를 부풀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빚어진 결과였다. 네 번째는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 있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2007년 시작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파급된 미국 최대 은행이 파산하고 주식 시장은 물론 경제 전체가 휘청거린 사건이다. 저자가 분석한 다섯 번째 금융위기는 2010년, 투자회사의 한 관리직 직원이 예측 기능과 분석 수준이 영성하기 짝이 없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적용한 바람에 다우지수가 몇 분 만에 600 포인트, 즉 6 퍼센트 이상 폭락했다가 몇 분만에 되살아나고 다시 10 퍼센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단 5분 만에 시가총액 8천억 달러가 사라진 ‘플래시 크래시’다. 그리스 경제의 혼란을 일으킨 서막으로 평가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 다섯 건의 대규모 위기를 각각 상세히 파헤치면서 그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인간의 약점과 영웅적인 구제책, 해결 방안의 등장 등 극적인 면들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모두 미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나 수백 만 미국 국민의 크고 작은 재산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그들 개개인의 미래를 바꾸어놓은 엄청난 사태이고, 미국의 정치, 문화에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저자는 금융 시장의 사태가 남긴 여파를 이처럼 포괄적인 범위에서 평가하며 그 의미와 교훈, 앞으로 주식시장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

<목차>

머리말

- 1장. 1907년의 혼란 – 미국의 세기가 열린다
- 2장. 1929년의 위기 – 모든 위기는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을 뒤집은 위기
- 3장. 1987년 검은 월요일 –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사태
- 4장. 2008년 경제위기
- 5장. 2010년 주가 붕괴(플래시 크래시) – 기계적 수법의 등장
- 6장. 부치사

<저자 소개>

스캇 네이션스(Scott Nations)는 재무 엔지니어링(금융공학) 업체 네이션 쉐어스(NationsShares)의 대표이다. CNBC에 자주 출연하여 투자, 시장 전망에 관한 견해를 제공해 왔다. 저서로는 『Options Math for Traders』와 『The Complete Book of Option Spreads and Combinations』가 있다.

제목 : RUN SMART

가제 : 똑똑하게 달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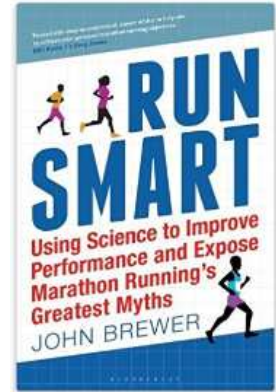
저자 : John Brewer

출판사 A&C Black Advantage

발행일: 2017년 9월 21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운동/건강



- * “개개인의 마라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조언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제시되어 있다.” - **BBC** 라디오 그렉 제임스
- *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현명하고 명쾌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마라톤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싶은 사람, 마라톤을 쉽게 해내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 배우 겸 감독 아만다 밀링

42.195 킬로미터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도전의식과 훈련,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과정을 수월하게 해낼 수는 없겠지만, 알면 모를 때보다 더 원만하게 힘든 과정을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스포츠과학 분야에서 영국의 대표적인 마라톤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저자는 완주가 목표인 초보 마라톤 꿈나무부터 기록 단축이 목표인 베테랑 마라토너까지 모두가 각자의 수준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마라톤을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과 억측을 하나하나 꼬집고 체계적인 훈련과 준비를 통해 이 위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준다.

책은 세 시간 안팎의 기나긴 마라톤 전 과정과 수십 년에 걸친 마라톤의 과학적인 성장 과정을 고려한 총 6장으로 구성된다.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실제 경기에 출전하고 이후 몸을 회복시키는 단계별로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제시된다. 1장에서는 먼저 인체가 경험을 통해 적응 능력이 발전하고 새로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발전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과학적 자료들을 살펴본다. 이어 2장에서는 마라톤 훈련의 원리와 필요성, 적절한 훈련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각자의 수준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논의한다. 더불어 질병과 부상을 최대한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법과 경기에 실제로 출전하기 며칠 전에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몸을 관리하는 요령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경기 당일에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한다. 영양 섭취, 수분 공급, 정신적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과학적 정보와 함께 경기 도중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알려준다. 네 번째 장에서는 경기가 끝난 뒤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하고, 일상생활로 무난하게 돌아올 수 있는 팁을 제공한다. 이어 5장에서는 마라톤에 잠재된 새로운 도전 과제와 대안을 살펴보고 마지막 6장에서는 각자의 마라톤 실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실제 훈련 프로그램의 예시를 보여준다. 각 장

마다 잘못 알려진 마라톤에 관한 오해를 바로 잡는 내용이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되어 마라톤 초보들이 불필요하게 느끼는 두려움을 해소하고 노력이 잘못된 전제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끌어준다.

마라톤은 분명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힘들고 고된 운동이지만 스트레스를 최소한을 줄이고 즐길 수 있는 방법 또한 분명히 있다. 무작정 이를 악물고 달리기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보다 현명하게, 고생은 덜 하면서 즐겁게 마라톤에 참여하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1장. 마라톤의 과학

2장. 마라톤 훈련

3장. 경기 준비, 경기 당일

4장. 회복 요령

5장. 새로운 도전

6장. 유용한 자료

<저자 소개>

존 브루어(John Brewer)는 영국의 대표적인 스포츠과학 전문가이자 저명한 마라톤 전문가로, 런던 마라톤 자문가이자 직접 열아홉 번 출전했다. 현재 세인트 메리 대학교에서 응용 스포츠과학부 학과장을 맡고 있다. 운동 잡지 「Running Fitness」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여러 방송에도 자주 출연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공식 자료 「London 2012 Olympic Games Track Athletics Training Guide」를 집필했다.

제목 : WE ARE NEVER MEETING IN REAL LIFE

가제 : 현생에서 절대 만나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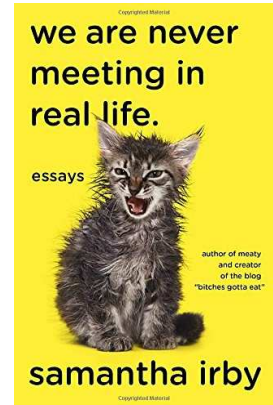
저자 : Samantha Irby

출판사: Vintage

발행일: 2017년 5월 30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아마존 선정 '**2017년 6월** 최고의 도서', 「나일론(Nylon)」 매거진 선정 '올 여름에 읽을 만한 책 **20권**'에 포함
- * "저자는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들을 배꼽 빠지는 유머로 격렬히 논할 줄 아는 사람이다." - 「뉴욕타임스」 저널리스트 자넷 마슬린
- * "가드 내리고 실컷 웃으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책" - 아마존 북 리뷰, 페니 만

스스로를 “똥똥한 흑인”이라 소개하는 인기 블로거 겸 동물병원 고객 상담사, 코미디언인 저자는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완성한 이 에세이에서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관찰하며 느낀 점들을 또 다시 눈물 나게 웃긴 이야기들로 전한다. 삶이 엉망진창 복구 불능인 혼란으로 가득하더라도 웃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 그냥 울지 않으려고 웃어야만 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저자는 실제 나이가 서른 중반쯤 됐지만 자칫 60대로도 거뜬히 오해 받을 수 있는 외모의 소유자라고 당당히 언급하면서, 특유의 사뭇 진지하지만 읽는 사람은 배꼽 빠지게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문장으로 어린 시절 씩 유쾌하지 않았던 가정 폭력의 기억부터 “어른답게” 돈을 모으고 쓰면서 사는 일, 온갖 희한한 사람들과의 성적 만남, 이제는 결혼하고 애 낳은 친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우정을 유지하는 일, 그리고 친 자매나 다름 없는 애완 고양이 헬렌 켈러와의 특별한 동거에서 깨달은 것, 세상에 알리고 싶은 사실들을 솔직하게 밝힌다.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성생활도 상당히 활발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고양이와 집에 틀어 박혀서 정크푸드와 함께 시시껄렁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주구장창 보는 것이 더 좋다는 저자는 고양이 헬렌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탓에 이미 묶어버린” 상태라고 자신들을 정의한다. 같은 맥락으로 어느 순간부터 실제로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것보다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과 농담 따먹기를 하는 편이 훨씬 더 재미 있다고 털어 놓는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마을에 살면서 주민 대다수가 서로의 삶을 잘 아는 환경에서 느낀 장점과 단점, 2002년부터 동물병원 상담사로 일하면서 겪은 온갖 우여곡절, 늘 술에 절어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와 그 힘에 짓눌려 있던 엄마의 기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 관계가 소원해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골을 뿌리기 위해 순례자처럼 내쉬빌로 떠났던 여행, 걸핏하면 머릿속을 사로 잡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레즈비언으로 살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에 관한 불투명한 걱정들이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안쓰러움을 불러 일으킨다. 어떤 인종이나 나이, 국적의 사

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저자의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위트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느끼는 서글픔과 외로움이 그 속에 배어 있기에 눈물을 흘리며 웃으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 느끼는 씁쓸함이 그대로 전해진다.

지치고 지루하고 힘겨운 삶을 꾸역꾸역 살아내는 시간 속에서 저자가 느낀 삶의 진실, 투명하고 생생한 그 진실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특별한 에세이다.

<목차>

1. 나의 미혼 상황
2. 프레드를 위한 블루스
3. 기적의 포커
4. 그래서 너네 돈 낸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5. 섹스에 굳이 감사할 필요는 없다
6. 크리스마스 캐롤
7. 생일 축하해
8. 집안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
9. 심장의 전면 공격
10. 합법적 동성결혼
11. 마비스
12. 젠장, 그냥 똥똥하게 살아.

(이하 생략, 20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사만다 어비(Samantha Irby)는 코미디언이자 동물병원 고객 상담사로 일하면서 “bitches gotta eat”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제목 : THE LEADER'S GUIDE TO LATERAL THINKING SKILLS

가제 : 리더를 위한 수평적 사고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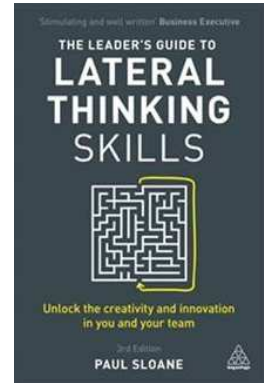
저자 : Paul Sloane

출판사: Kogan Page

발행일: 2017년 9월 28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비즈니스, 경영



*** “한 해 동안 경영서를 딱 한 권만 읽는다면 이 책을 읽어라. 현대 비즈니스 리더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통찰이 담긴 책.” – 델 컴퓨터 북유럽 지역 대표, 브라이언 맥브라이드**

*** 수평적 사고 기술로 혁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 「와티파이(Whatify)」 매거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구성원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자신의 몫을 다하도록 하는 것, 소비자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 규모와 상관 없이 사업체 운영자, CEO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이다. 기존에 하던 방식을 여기저기 손보는 것 만으로는 과거와 완전히 바뀌어버린 비즈니스 세계에서 발전은커녕 사업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그것도 시급히 해내야만 하는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회사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 규모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경영진은 끊임없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즈니스 혁신을 돕는 컨설턴트로 활약해온 저자는 1973년 심리학 박사인 에드워드 드 보노 교수가 처음 제시하여 미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특히 큰 주목을 받은 ‘수평적 사고(lateral thinking)’ 이론을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해답으로 제시한다. 직역하면 ‘옆으로 생각하기’라는 뜻을 가진 수평적 사고는 위에서 내려오는 수직적인 사고 방식, 즉 확고히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혀 상관 없어 보이는 결과지에서 답을 찾아보는 창의적인 사고를 의미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 혹은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대대적인 변화의 방향을 수평적 사고로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실행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소개한다.

직원 개개인이 창의력 넘치는 개인 기업가처럼 활약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일하다가 맞닥뜨린 문제를 걸림돌로 여기는 대신 발전의 계기로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알아서 이것저것 탐색하는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저자는 수평적 사고를 키우는 톨과 기술을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버진 그룹, 테슬라 모터스, 스페이스 엑스,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 등 실제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창의적인 방식으로 위태로운 기업에 활기를 불어 넣은 사례들도 함께 제시되어 창의적 통찰력에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수평적 사고의 핵심은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소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수직적 사

고 방식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요소까지 두루 살피는 것이다. 즉 문제는 고정불변된 상태로 그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대신 문제 자체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당연히 받아들이는 생각과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참신한 생각을 일깨우는 기술과 툴, 수평적 사고를 키우는 퍼즐, 브레인스토밍 기법, 자가평가지, 연습문제, 실행목록 등 실제 사업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도구가 담긴 알찬 경영서다.

<목차>

머리말

1. 혁신의 필요성
 2. 수평적 리더의 특징
 3. 혁신 테스트
 4. 변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라
 5. 비전을 현실로 만들자
 6. 확고한 전제도 다시 생각하라
 7.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을 정리하라
 8. 다른 시각으로 보라
 9. 안 어울리는 것을 묶어보라
 10.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개선하라
 11. 규칙에서 벗어나라
 12. 분석이 우선이다
- (이하 생략, 총 22장과 부록 1, 2로 구성)

<저자 소개>

폴 슬론(Paul Sloane)은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혁신과 창의력 개발 기술에 관한 컨설팅과 워크숍을 진행해 왔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 『How to Be a Brilliant Thinker』, 『The Innovative Leader』 등이 있다.

제목: WHERE THE PAST BEGINS

가제: 과거가 시작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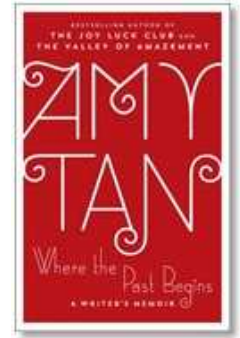
저자: Amy Tan

출판사: Ecco

발행일: 2017년 10월 17일

분량: 224 페이지

장르: 회고록



*** 「조이럭 클럽(The Joy Luck Club)」의 원작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야기하는 작가로서의 삶, 소설과 정서적 기억과의 공생 관계**

소설가에게는 상상력이 필수 요소지만, 그 상상력의 산물로 탄생한 이야기 속에는 그저 지어낸 상상만이 아닌 작가의 기억, 감정이 ‘실제 그대로’ 담길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글을 쓴 당사자만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영화로 만들어져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영화 ‘조이럭 클럽’의 원작자이자 꾸준히 베스트셀러 소설을 발표해온 소설가 에이미 탄은 “글을 쓰는 과정은 잃어버린 것들을 고통스럽게 되살리는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이 에세이에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작품들이 어떻게 완성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감정, 정서적 기억을 꼬집어내는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설명한다. 탁월한 소설을 읽었을 때 누구나 한 번쯤 해봄직한 질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에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 작가의 이야기에는 소설과 개인의 기억이 공생관계를 맺으면서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과 함께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적으로 밝힌 적 없는 가슴 아픈 어린 시절의 가정사가 진솔하게 담겨 있다.

이럴 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면 ‘참 잘 그린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자는 기쁘기보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집을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의 크기가 집과 비율이 맞을 때, 동치가 적당히 굵고 나뭇가지와 잎의 크기가 적당할 때 잘 그린다고 인정했다. 거기에 실제로 나무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새들을 하나 추가해서 그리면 상상력이 참 뛰어나다는 칭찬까지 더해졌다. 눈 앞에 펼쳐진 풍경을 사실적으로 종이에 옮기는 것, 그 과정은 저자에게는 그리 놀라운 것도 없었지만 사진을 찍는 것과 유사한 그 과정에 개인적인 상상이나 창의력은 한 점도 들어 있지 않았다. 나중에 서른이 훌쩍 넘어 처음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 후에야 저자는 그림을 그릴 때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내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한다. 글을 쓰는 동안 머릿속에 잠자고 있던 믿음, 혼란, 두려움이 갑자기 깨어나 종이에 써 내려가는 이야기와 뒤섞이고, 평소 저자를 사로 잡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 내게 남은 생애는 몇 년일까에 관한 구체적인 염려가 반영되는, 영혼이 글 속에 개입하고 들어오는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제야 왜 그림 참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는 부족하다 느끼면서도 더 연습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런 내적 변화는 연습할 수 없었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글을 쓰는 건 자신에게 남아 있는 줄도 몰랐던 기억들, 그냥 가라 앉기를 바랐던 기억들을 발견하는 과정이고 대부분은 큰 고통을 안겨줄 뿐

만 아니라 그 여파가 글 쓰는 이를 압도하고, 변화시키고, 오래도록 잔향처럼 여파를 남긴다. 저자는 이 혼란스러운 과정이 소중한 이유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오클랜드에서 보낸 어린 시절, 중국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 소설가로 성공하기까지의 삶을 차분히 돌아보며 저자는 작가가 되리라곤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본다. 소설을 쓰면서 물처럼 마음대로 움직이는 마음과 의식의 흐름이 누워 있던 기억을 깨우고, 그것이 완성되는 작품마다 가장 중요한 감정의 핵으로 단단하게 굳혀져 가는 과정은 신기하면서도 놀랍다. 지금까지 그 특별한 의식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재차 대면해야 했던 가족의 기억, 여섯 살 때 지능검사를 받아야만 했던 이유와 학력을 속였던 부모님, 외할머니를 둘러싼 수수께끼 같은 일들, 저자가 열다섯 살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의 복잡한 관계도 저자는 숨김없이 털어 놓는다.

삶의 목적과 의미, 아주 방대하지만 누구나 고민하고 떠올리는 이 문제를 소설가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답을 찾아본 흥미롭고 독특한 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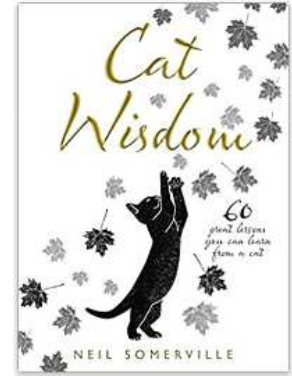
<목차>

- 미정

<저자 소개>

에이미 탄(Amy Tan)은 PBS 애니메이션 시리즈로도 제작된 어린이 소설 『The Chinese Siamese Cat』(1994)을 비롯해 영화로 제작된 『조이 럭 클럽(The Joy Luck Club)』, 『The Kitchen God's Wife』, 『The Hundred Secret Senses』, 『The Bonesetter's Daughter』, 『The Opposite of Fate: Memories of a Writing Life, Saving Fish from Drowning』 등을 발표한 소설가, 저술가, 각본가다. 현재까지 발표한 여러 작품들이 35개 언어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제목 : CAT WISDOM
가제 : 고양이의 지혜
저자 : Neil Somerville
출판사: Harper Thorsons
발행일: 2017년 10월 5일
분량 : 14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동물



* 해마다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Your Chinese Horoscope」 저자의 신작

* 고양이의 독특한 매력에서 배울 수 있는 60가지 삶의 지혜, 감각적인 일러스트레이션 포함

수많은 사람들이 ‘집사’를 자처하며 친구로, 가족으로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거리를 해매는 길 고양이를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먹을 것과 물을 챙겨주고 험한 날씨에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다. 고양이는 흔히 애완동물로 키우는 개와는 또 다른 독특한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고 있다. 쉽게 다가와 몸을 비벼대는 대신 조금 거리를 두고 쳐다보는 눈빛이나, 대놓고 티를 내지 않지만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모습, 별 좋은 곳에서 더없이 편한 자세로 누워 몸을 깨끗이 단장하는 모습은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매년 동양의 별자리 운세를 책으로 펴내 수년째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오른 저자는 고양이를 키우고 관찰하면서 이러한 즐거움을 넘어 복잡하고 피곤한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 만한 60가지 지혜를 고양이에게서 발견하고 이 책에서 소개한다. 짤막한 글과 간간히 포함된 멋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익히 알고 있는 고양이의 특징이나 미처 몰랐던 매력에 나타나는 소중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고양이 기르는 사람의 집에 방문해본 사람은 처음에는 어딘가로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도 않던 그 집 고양이가 소리 없이 나타나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얼굴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길을 가다가도 문득 시선을 느껴 고개를 돌려보면 나무 위나 어느 집 담장 위에서, 혹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사이에서 뻗어 쳐다보는 고양이를 발견할 때가 있다.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잠시 한숨 돌리고 생각할 여유를 잊기 마련이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머릿속을 가득 채운 여러 가지 고민과 계획을 차분히 되짚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저자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 세상과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고양이를 떠올리며 잠시 짬을 내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챙기자고 이야기한다. 원하는 것,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에게는 절대 모를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그 애정을 표현하는 것 또한 고양이의 매력이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줄 때까지 울거나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 혹은 길목에서 기다리고 반가운 사람에겐 강아지처럼 배를 드러내며 가르릉거리며 애교도 부릴 줄 알고, 쥐를 잡아 문 앞에 가져다 놓는 지극히 고양이만의 방식일지언정 감사함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고양이의 확실한 의사표현도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멋쩍다는 이유로 고마워도 대충 인사하는 것으로 넘어가

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도 뚜렷하게 의사표시 한 번 못하고 주저하기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때로는 확실하게 자신의 생각, 마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속으로만 끔끔 앓고 말안 해도 상대가 다 알아주겠거니 넘겨짚는 대신 누가 봐도 확실하게 고마움과 애정, 진정으로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은 보다 두터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회가 찾아오면 절대 놓치지 않는 것,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 필요할 때 설득력을 발휘하는 것,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까지, 60가지 고양이의 지혜와 유명한 경구, 속담이 함께 제시되어 언제든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목차>

머리말

인내

고마워하기

느긋함

조용히 관찰하기

각별한 반가움

주는 것의 소중함

발견하기

관심 갖기

시선 피하기

서러움을 토해내다

잠자기

(이하 생략, 60가지 소제목으로 구성)

<저자 소개>

닐 소머빌(Neil Somerville)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Your Chinese Horoscope』의 저자로 동양 문화와 전통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